재테크 Money

■ 고령화 급진전…노년층 겨냥 상품 '봇물'

'老테크' 연금형 정기예금 뜬다

매월·일정 기간마다 원리금 분할 지급

장례용품 지원에 묘지·납골당 안내도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노년층을 겨냥, 매월 원리금(원금+이자)을 지급하는 연금형 정기예금 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기예금이 본래 만기까지 예금액을 거치한 뒤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반해 연금형 예금상품들은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원리금을 분할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전에도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는 있었지만 최근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만으로는 연금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리금 지급방식으로 월 수령액을 높인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금리 연 4.9%)에 예치했을 때 원리금 만기지급식은 1억1천244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월 이자지급식은 이자 34만5천원 정도를 매월 지급한다.

반면 '연금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매월 293만원씩 원리금이 분할 지급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매월 원리금수령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하나 셀프디자인예금'을 판매중이다.

최대 31년까지 만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중도에 월수령액 및 만기잔액을 변경할 수 있는 맞춤형 정기예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연금식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셀프디자인예금의 경우 중도에 월수령액과 만기잔액을 모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9월부터 연금식으로 분할지급이 가능한 '뷰티플라이프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원리금분할지급을 선택하면 최장 8년 이내에서 1개월이나 3개월, 1년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년마다 변경되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를 추가 지급하고 예금 가입후 1년이 지나면 당시 금리에 0.1%를 더 지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기업은행의 '100세 통장'은 풍요한 노후를 추구하는 장년층과 노후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연금식 예금지급이 가능하다.

만 50세 이상 고객이 5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는 '100세 정기예금'과 만 30세 이상 고객이 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는 '100세 정기적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본인·배우자 장례때 장례용품을 지원해주고 묘지나 납골당을 안내해주는 웰엔딩(Well-Ending) 서비스를 제공, 노년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은행도 'KB시니어웰빙통장'을 통해 50세 이상 장년층의 자산관리를 돕고 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나 확정금리형 이자지급 방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의 자녀가 수혜자를 부모로 지정해 대신 가입할 수도 있다.

광주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이자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워진데다 조기 퇴직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 담보대출 대폭 증가

은행들 일제히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7천414억원이 늘어 올해 5월(3조728억원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올해 상반기중 4월과 5월 각각 3조원대의 증가세를 기록한 후 금융감독당국이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8월에는 증가규모가 1조3천255억원으로 둔화됐다.

그러나 9월에 2조5천969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10월에 다시 2조7천414억원이 늘어 증가세가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한편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정부의 대출 규제안이 다음주중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영업점장 전결로 0.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줄 수 있는 우대금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도 다음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최대 0.7%포인트까지 운용중인 지점장 전결금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조만간 금리우대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협·외환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들은 현재까지 명확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다음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은행업계 분위기와 대책 취지에 맞는 주택담보대출 억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 세계 조선소 CEO들 선박 건조규제 공동대응

부산 대표자회의 합의

전세계 대형 조선소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건조규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8일 '제15회 JECKU 세계 조선소 대표자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JECKU 회의에서 IMO의 조선관련 규제나 법규에 대한 논의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 참석자는 IMO의 선박 건조규제 논의에 당사자인 대형 조선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JECKU 모임에서 만든 조선실무자위원회(CESS)를 강화해 적극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번 JECKU 회의는 전세계 대형 조선소 CEO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징완 삼성중공업 사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니시오카 다카시 일본조선협회장, 코라도 안토니니 핀칸티에리조선소 회장, 주시리 중국조선협회장, 프레드 해리스 제너럴다이너믹스 사장 등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이처럼 이들 CEO들이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은 올해초 IMO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줄이려고 유조선과 벌크선 건조용 후판 두께를 강화한 공동구조규칙(CSR)을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조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IMO는 선박의 좌우균형을 맞추는 밸러스크탱크에 대한 처리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박건조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 전세계 조선업계는 이를 방관했다가는 수익악화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수요일엔 수산물 드세요" 해양수산부 주최로 8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수요일엔 수산물을 드세요'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주최측에서 마련한 전어구이를 시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이익 철저 환수"

전군표 국세청장 밝혀

전군표 국세청장은 8일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대표 등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따뜻한세정 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세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 "과세 기준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 등으로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고지납부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문 송달에서 신고납부 전과정을 국세청 직원이 전담관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소득의 엄정 과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투기혐의 상시분석, 조세채권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배추·무값 폭락…전남 790ha 폐기

작황호조 과잉물량 해소

작황호조로 배추와 무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산지가 안정을 위해 농협과 전남지역 농가의 계약재배물량의 일부를 산지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의 경우 전국 폐기규모 2천400ha의 32.9%에 달하는 790ha를 폐기하게 된다. 가을무는 123ha로 전국(400ha)의 30.75%, 가을배추는 467ha로 전국(1천800ha)의 25.9%, 월동배추는 200ha로 전남지역에서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전국의 산지폐기 규모는 김장용 무와 배추의 8.2%에 달한다. 단가는 배추가 단보(10a,302.5평)당 50만5천원, 무는 40만5천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생산자들이 비용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가격이 떨어져 과잉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납 확대 등도 추진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 배추 1포기라도 더 김장을 담가달라"고 당부했다.

배추 값은 10월 중순 1kg당(도매가 기준) 209원에서 11월초 186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무 도매가는 같은 기간 1kg당 413원에서 261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11월 들어 배추값은 작년 동기보다 69%, 평년보다 41% 낮은 수준이며 무값은 작년 동기보다 56%, 평년보다 38% 가량 각각 하락했다.

농림부는 산지폐기가 성공하면 배추 도매가가 1kg당 350~400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등 배추와 무값이 평년 수준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은 이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김장비용은 작년에 비해서는 9.2% 적게 들 것으로 추정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배추 20포기와 무 10개를 구입해 김장을 담글 경우 배추 구입비는 3만원으로 작년동기보다 34.6% 적게 들고 무도 1만3천원으로 28.5%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출총제 적용 기업 20개 내외로 축소"

권오승 공정위원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과 관련, 대기업집단에서 출자집중도가 높은 중핵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와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핵기업 출자규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30개가 적용 대상인데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 대상은 20개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 위장장은 강연에서 "현재 14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340여개 기업이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중 일정규모 이상 기업만 출자제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출자규제 대상 기업수가 20~30개로 대폭 완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상호출자금지의 변형인 만큼 상호출자금지 제한 기준인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장래 형성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지만 기존에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의 처리에 대해선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환상형 순환출자규제와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을 기존 출총제의 개편안으로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권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다른 부처들이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틀에 대한 인식은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틀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車 200만대 넘어서…전체13%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200만대를 넘어섰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9월말 현재 201만대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13%를 차지했다. 2001년 11월 국내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도입된지 5년 만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은 2002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2.3%, 2003년 4.5%, 2004년 7.2%, 2005년 10.3%로 급상승했으며 올해에는 1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사들은 설계사 수수료 등이 들지 않아 보험료가 오프라인 상품보다 30% 가량 싸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주 '처음처럼' 대박 비밀은 통계"

이정태 두산주류 팀장

"소주 '처음처럼' 대박의 비밀은 통계입니다." 이정태 두산주류BG 브랜드팀장은 8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통계청 주최 '통계활용 국제포럼'에서 국내사례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처음처럼'은 출시 6개월만에 시장점유율 10%를 넘어 '참이슬'의 독주를 저지하고 주류업계의 대박상품으로 떠올랐다.

이 팀장은 "인구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30, 40대는 물론 50대 이상의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되 한 번 술을 많이 마실 때 많은 양을 소비하는 20대와 마시는 양은 작지만 자주 마시는 40대를 주 공략대상으로 삼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지디지털㈜	품질관리,생산관리,구매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0	062-955-0801
㈜세기엔지니어링	토목/안전진단 현장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11	062-529-8689
동양생명보험㈜	2006 특채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226-4904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해외 유학 , 어학연수 상담 및 관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233-8171
서울검사㈜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3	062-369-0790
우리캐피탈㈜호남본부	2006년 개인 agency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4	062-941-9700
㈜이그잼	고시학원 상담실장(신입.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15	062-511-8601
㈜성진케미칼	부서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943-8115
동국전자㈜	품질관리/개발직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17	062-952-4492
㈜모망바이오테크	고객상담, 관리 등 전반적인 쇼핑몰 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8	062-224-7505
두메푸드시스템	경리/회계/부가세(더존 능숙자 우대)	초대졸/경력2년	1000~1200	11/20	062-571-6000
㈜금강플랜트	사무관리,건설공무 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20	061-393-0815
시너지정보	아웃바운드TM/고객상담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0	062-941-0375
엘지텔레콤	영업관리및 영업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526-904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고속도 달리다 날아온 돌 맞으면?

"적정한 보상 불가능"

고속도로를 달리다 날아온 돌에 맞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앞차의 낙하물에 의해 인명이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보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근거규정이 미흡해 적정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현행 법규에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나 소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소보원에 접수된 고속도로 주행도중 낙하물에 따른 피해사례는 2004년에 1건, 지난해 3건 등 지난 2년간 모두 4건이다.

소보원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속도로 관리주체가 화물차량 등이 요금소를 통해 진입할 때 적재된 화물의 포장상태나 낙하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주의·관리 의무를 도로교통법 등에 명시해 책임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건의해놓은 상태다.

/연합뉴스